

# 풍자적 관점에서 바라본 마기 마랭 작품에 관한 연구\*

- 「Cinderella」, 「Groosland」, 「Coppélia」를 중심으로 -

안현민\*\* · 조은숙\*\*\*

I. 서론	V. 결론
II. 풍자의 개념과 특징	참고문헌
III. 마기마랭의 작품분석	Abstract
IV. 세 작품에 나타난 풍자적 특징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 발전과 함께 무용예술도 다양한 가치관과 이념이 생성되면서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를 하는 안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교와 형식에 중점을 두던 고전발레 작품들도 다양한 예술 표현 방식을 접목시키고 장르를 망라한 창작 작품들로 발전되어 무대에 올려지고 있다. 특히 고전 발레 작품을 현대무용과 접목하여 폭 넓은 작품을 만들거나 기존의 작품을 풍자화 시키는 시도는 많은 안무가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풍자적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대표적인 안무가로는 프랑스 출신의 마기 마랭(Maguy Marin, 1951~)을 꼽을 수 있다. 그녀는 사회적 부조리를 다양한 예술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 작품으로 풀어내는 안무가로 80년대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고전발레 작품들을 연극적이고 희화적인 작품들로 발전시켰고, 특히 무대세트, 인체의 확장, 움직임의 변화, 의상과 소품 등을 이용하여 기존 작품들을 풍자적으로 재해석 하는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그녀의 대표작은 「May B」(1981), 「Cinderella」(1987), 「Ramdam」(1995), 「Salves」(2010) 등이 있으며 지금까지 약 40편 이상의 작품을 안무하였다. 마기 마랭은 심오한 주제를 웃음을 가미해 어렵지 않게 전달하며 사회의 부조리를 풍자적으로 풀어냈다.

예술작품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 중 풍자는 무용수와 관객을 친근하게 이어줄 수 있는 방법 중

\* 본 논문은 2018학년도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및 발췌하여 보완한 것임.

\*\* 주저자, 중앙대학교 석사과정 졸업, 3734min@hanmail.net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교수, eschod@hanmail.net

하나이다. 풍자는 골계(滑稽)의 하위개념으로 그 개념과 특징을 명확하게 규명하자면 어떠한 문제를 웃음을 통해서 비판하고 개혁할 의지가 담긴 것을 말한다. 풍자는 교훈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고 간접적으로 표현을 전달하며 사람뿐만 아니라 품행, 사회 등 사회적인 역할을 가진 모든 대상이 가능하다. 또, 풍자는 객관적인 성격이 강하며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며 무용작품에서는 웃음과 더불어 더 깊은 해석이 있는 다양한 종류의 감정을 담을 수 있다. 그러나 무용 작품에서 풍자를 통해 작품의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지만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풍자를 이용하는 많은 안무가들 중 마기 마랭은 어떠한 문제나 상황을 풍자하면서도 자신만의 유머로 어렵지 않게 창작하여 풍자의 특징을 잘 살리는 예술가로 평가되어 왔다. 마기 마랭의 작품은 그동안 다양한 시각으로 연구되어 왔고, 특히 그녀의 작품을 중점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는 약 4편이 있다.<sup>1)</sup> 하지만 그녀의 작품에 관한 선행연구들 가운데 미적 범주의 하나인 풍자적 관점에서 마기 마랭의 작품을 분석한 논문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패러디를 통한 무용 작품을 분석한 연구들은 여러 편이 있으나 마기마랭의 작품을 풍자적으로 분석한 작품은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상상력과 언어로 작품을 만들어낸 마기 마랭의 재해석된 발레 작품들에 담긴 풍자적 표현을 분석하여 작품에서 풍자가 주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마기 마랭의 작품 중 그녀만의 안무성향과 풍자적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발레 작품들, 「Cinderella(1987)」, 「Groosland(1989)」, 「Coppélia(1993)」 등 세 작품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세 작품 중 「Cinderella」, 「Groosland」에 대해서 무용 평론가 장인주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마랭은 발레동작을 현대적으로 변형하거나 고전을 재해석 하지 않았다. 그냥 발레단원들에게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 든 발레와 별반 다르지 않은 춤을 추게 했을 뿐 인데 극히 현대적인 작품이 탄생한 것이다. 동화에 현대적 환상의 옷을 입히고, 이는 곧 발레계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다. ...1987년 파리 오페라단을 위해 안무한 <어둠의 교훈(Lecon de tenebres)>과 발레리나에게 솜뭉치 옷을 입혀 부르주아를 비꼬았던 <그로스란트(Groosland)>(1989년)는 발레도 얼마든지 시대적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보여준 수작이다.<sup>2)</sup>

연구에 선정된 세 작품은 발레의 움직임의 보여주면서도 작품 내용에 따라 마기 마랭만의 스타일로 발전되어 전형적인 발레 작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연출되었다. 그녀의 다른 작품들은 현대무용의 형식을 많이 띠고 있는데 반해 본 세 작품은 발레라는 전통적인 형식을 유지함과 동시에 창의성이 돋보여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풍자적으로 마기 마랭의 작품을 분석하기 위해 학위논문, 단행본, 무용서적, 평론, 잡지 등을 참고하여 문헌연구를 하고자 한다. 또한 작품 분석을 위해 마기 마랭의 「Cinderella」, 「Groosland」, 「Coppélia」 등의 영상자료를 참고하고자 하며 풍자적 작품의 움직임들은 어떠한 성향이 있는지 Effort

1) 이다효(2000), Maguy Marin의 총체예술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변희은(2010), Maguy Marin과 Marie Chouinard 작품에 나타난 인체 오브제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봉순(2003), 오브제 개념에서 본 마기마랭(Maguy Marin)의 작품 「May B」의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차주연(2017), 마기마랭(Maguy Marin)작품 「May B」에 나타난 연극적 안무구조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 장인주(2013), 『꿈꾸지 않았어도 혁신을 불러일으킨 마기마랭』(서울: LG 아트센터).

(에포트)요소를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루돌프 폰 라반(Rudolf von Laban)의 Effort이론은 움직임의 질감에 사람의 내면적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주장으로 시작되었다. 그 의도를 분석하기 위해 라반은 공간(Space), 시간(Time), 흐름(Flow), 무게(Weight)로 동작 요인을 나누었다.

## II. 풍자의 개념과 특징

### 1. 풍자의 개념

‘풍자(諷刺)’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흔히 웃음을 떠올린다. 풍자는 기본적으로 웃음을 동반한 단어라고 볼 수 있다. 사회문제를 다루는 예술작품에서 풍자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풍자는 단면적으로만 보이는 웃음 뒤에 슬프고 힘든 감정을 담고 있어 개인적인 감정을 정확히는 역할을 뛰어넘어 사회적 문제를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는 풍자라는 표현 도구를 통한 예술작품은 개인적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가치가 있으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sup>3)</sup> 흔히 우스꽝스럽게 모방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패러디(Parody)는 풍자의 표현 방법 중 하나이다. 풍자의 개념을 확실히 정립하기 위해서는 풍자와 유사한 개념인 해학, 골계, 기지, 아이러니 등과 차이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와 더불어 흔히 풍자의 상위개념이라 구분되는 골계의 의미부터 규명하고자 한다.

골계는 익살스러운 ‘골’과 상고할 ‘계’로 사전적 의미는 ‘우스꽝스러운 것’이라고 규명되고 골계는 웃음을 자아내는 문학의 전반적인 요소에 폭넓게 적용되는 말이며, 골계의 하위개념으로는 기지, 풍자, 반어, 해학 등으로 구분된다.<sup>4)</sup> 이처럼 다른 사람을 재미있게 해주고 웃음을 주기 위한 말이나 행동을 골계라고 말한다.

골계는 객관적인 골계와 주관적인 골계로 나뉜다. 객관적인 골계는 작가가 웃음거리를 만들기 위해 계산한 것이 아니라 우스꽝스러운 형상이나 대상 자체를 의미한다. 주관적인 골계는 작가의 계산에 의해 웃음을 짓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관적인 골계는 객관적 골계만큼 간단한 것이 아닌 복잡한 개념으로 작가의 고도의 능력이 필요하다.<sup>5)</sup> 다음은 골계 중 가장 큰 하위범주로 구분되는 해학의 개념을 먼저 규명하고 풍자의 개념과 함께 두 개념의 차이점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해학은 익살스럽고도 멋이 있는 농담, 유머를 말한다.<sup>6)</sup> 해학은 악의가 없는 웃음을 뜻하며 어떠한 현상이나 사람에 대해 동정을 유발하고 긍정적인 관점을 뜻한다. 해학의 웃음은 희망을 포함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면을 보여준다. 풍자를 사전적 의미에서 찾아보면 ‘무엇에 빗대고 비유하는 뜻으로 슬며시 돌려서 남의 결점을 말한다’는 뜻과 돌려서 슬며시 사회, 인물의 결함, 죄악 같은 것을 조소적으로 쓰는 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다.<sup>7)</sup> 풍자는 인간들이 만든 여러 제도나 사회의 부족한 점들을 지적하고 그것을 분쇄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웃음을 통해 비판하는 것이다.<sup>8)</sup> 자신이 타인을 우습게 만들기 위해 표현방식을

3) 김판삼(2017), 해학과 풍자의 표현 특성 및 요인 - 연구자 작품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4.

4) 한용환(1999), 『소설학 사전』(서울: 문예출판사), p.45.

5) 앞의 책, pp.45-46.

6) 이희승(1961), 『국어대사전』(경기: 민중서림), p.4321.

7) 앞의 책, p.4185.

8) 김동리(1973), 『한국문학대사전』(서울: 문원각), p.644.

과장시키고 반대로 이야기 하는 등의 풍자의 방법을 이용한다. 앞서 말한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대상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대상을 웃게 만들기도 분노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처럼 풍자는 단순한 웃음이나 분노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해학과 풍자는 예술의 한 표현방식으로써 웃음의 출발점은 같다고 볼 수 있으나 해학적 웃음은 그 사실과 현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웃음을 준다면 풍자적 웃음은 그것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비판의 의지가 담겨있다. 해학은 따뜻한 마음과 긍정적인 시선으로 대상을 표현하고자 하며 풍자는 타인의 상황이나 지위를 해하고 손상시키는 목적을 담고 있다. 풍자와 해학의 또 다른 차이점은 해학은 대상을 포용하는 특성으로 감성을 가지고 있지만 풍자는 감성보다는 지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있다는 점이다. 풍자는 지성을 바탕으로 하며, 이는 대상을 비판하고 해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해학은 대상을 비판하기보다는 따뜻한 마음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웃음을 유발하여 감성적으로 접근한다. 또, 풍자는 직접적으로 비판하기 힘든 대상을 웃음을 이용해 비꼬는 경우가 많다. 본인을 제외한 다른 대상을 비판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한 웃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보는 이에게 통쾌한 감정을 느끼게 해준다.

## 2. 풍자의 특징

앞서 골계의 하위개념과 함께 풍자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풍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풍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고 그 의도에는 교훈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풍자는 웃음을 바탕으로 표현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의도와 목적이 담겨있다. 풍자의 대상이 이전보다 발전되고 나아지길 바라는 교훈을 가지고 있다. 풍자는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표현 안에 담긴 의미와 의도를 간접적으로 전달한다. 정치적, 사회적 대상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비판하기 어려워 웃음을 통해 비꼬고 비하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돌려 표현하는 것이다. 풍자의 대상은 어느 누구, 어느 것 모두 가능하다. 작가 정진국은 “신체의 불완전성, 정신의 결함, 품행, 못된 정념, 습관, 사악, 탄생의 불운, 조건, 재산 등이 풍자예술이 기꺼이 섭취하는 자양분이다”<sup>9)</sup>라고 풍자에 대해 설명하였다. 흔히 피폐된 사회나 정치를 바탕으로 풍자적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들이 많다. 그에 관련된 인물이나 인간성, 관념, 사회성 등 모두 풍자의 표현으로 비판할 수 있다.

풍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 권순궁 교수는 풍자의 기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러한 풍자의 기능은 개인적인 것에서 끝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예술형태로 확대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풍자는 단순히 대상을 조롱하고 비꼬는 순간의 감정만이 아니라 비판적 태도를 수반하는 것, 즉, 사회적, 도덕적으로 교정하기 위한 사회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sup>10)</sup>

작품 속의 풍자적 표현은 공연을 보는 관객들에게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계

9) 정진국(2001), 『풍자예술의 역사-고대와 중세의 패러디 이미지』(서울: 까치), p.199.

10) 강미혜(2013), ‘풍자로 희화된 현대인 표현 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7.

기가 될 수 있다. 해학을 담은 웃음은 주관적인 웃음이라면, 풍자를 담은 웃음은 객관적인 성격에 해당한다. 웃음 중에 실소나 미소가 아닌 큰 표현을 담은 웃음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집단적인 웃음은 결속력을 지니고 서로의 감성을 교류하는 역할을 한다. 풍자는 세부적인 묘사로 이루어져있다. 묘사를 통해 캐릭터를 생생하게 파악해야 풍자가 효과적으로 드러난다. 풍자는 현실에 초연한 것을 대상으로 삼지 않고 세속적인 것을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섬세한 묘사를 통해 캐릭터를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III. 마기 마랭의 작품분석

프랑스 출신의 마기마랭은 무용수의 움직임 뿐 아니라 사회적 관점으로 작품을 풀어내어 1980년대 부터 유럽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마기 마랭은 1951년에 태어나 학교 무드라(Mudra)에서 교육을 받으며 안무를 시작했다. 졸업 후 외부활동을 하며 그녀의 첫 안무작 「YU-KU-RI」가 탄생하였다. 여러 작품을 만들며 꾸준히 안무활동을 하던 그녀는 자신의 무용단을 설립했다. 1981년 그녀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May B」가 나오기 전까지도 40편 이상의 작품을 안무하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녀의 작품들은 대부분 현대무용의 형식을 띄고 있다. 본 장에서는 현대무용보다는 전통적인 형상을 유지하는 발레 작품에서 풍자적인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세 작품, 「Cinderella」, 「Groosland」, 「Coppélia」 등을 선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1. 신데렐라(Cinderella)



〈그림 1〉 신데렐라의 계모와 언니들

마기 마랭의 「Cinderella」는 현재까지 가장 유명한 신데렐라 이야기인 프랑스 작가 Charles Perrault(샤를 페로 1628-1703)의 스토리로 그녀만의 특별하고 유머스러운 관점으로 작품을 풀어낸 작품이다. 등장인물의 동작마다 마기 마랭의 작품 분석 특징이 두드러지게 보이고 의상과 무대 세트 모두 평소에 보여 왔던 신데렐라의 이미지를 깨부수며 관객들이 작품을 보는 면에 있어 스토리뿐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도를 상상할 수 있도록 안무하였다.

「Cinderella」는 크게 3막으로 작품이 구성되어졌고 각 막에서 움직임이나 구성으로 풍자가 드러난 것을 볼 수 있다. 그 중 언니들과 계모, 귀족들의 움직임에서 가장 크게 풍자를 볼 수 있다. 그들은 신데렐라 작품에서 가장 비판 받고 있는 인물로써 그들의 끝도 없는 욕심과 못된 심성이 움직임으로 반복되어 표현된다. 그들의 동작은 무거운 무게(Weight), 가속화된 시간(Time)과 제한된 흐름(Flow)을 이용한 움직임이 많아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들이 보이도록 나타났다. 때로는 시간(Time)이 저속화 될 때가 있었지만 그것 또한 그들의 욕심을 담은 캐릭터를 강조하고 비판하기 위한 장면이다. 뿐만 아니라 신체 부위 중 팔꿈치나 엉덩이를 많이 사용하여 그들의 움직임이

우스꽝스럽게 보이게 하며 웃음을 이용하여 그들의 비열한 모습을 비판하고자 한다.

본 작품에서는 등장인물들의 의상과 가면, 소품을 통해서도 풍자성이 크게 드러나고 있다. 모든 인물들에게 입힌 스펀지 의상과 가면은 그들의 캐릭터를 극대화시켜주는 매개체이다. 계모와 언니들은 스펀지 의상과 흉한 표정을 짓고 있는 가면을 쓰며 그들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고 악한 성격을 비판하고자 극단적인 표현 도구를 입혔다. 귀족들 또한 고집스럽고 악덕한 심성을 의상과 가면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대상을 표현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보이는 시각적인 면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그들을 비꼬아 표현한다.

## 2. 그루스랜드(Groosland)



〈그림 2〉 그루스랜드

「Groosland」는 기승전결이 뚜렷한 스토리보다는 브라덴 부르크 협주곡의 각 장마다 다른 춤의 구성으로 연출된다. 마기 마랭은 부르주아들의 허영과 욕심을 조롱하고 비판하고자 작품을 구성하였다. 마기 마랭은 한 인터뷰에서 부르주아들을 보면 뚱뚱한 사람들이 많고 그녀가 임신했을 때, 그들처럼 빠와 살이 육중해진 경험은 있지만, 다시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sup>11)</sup> 이 작품은 무용수의 움직임으로 풍자성을

을 띄고 있다. 무용수들은 무거운 스펀지 옷을 입고 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가벼운 스텝으로 반전을 보여준다. 무게(Weight)는 가볍고 시간(Time)은 가속화되어 부르주아의 허영을 비꼬고 있다. 자신들의 욕심으로 신체는 무거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본질은 가벼운 것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움직임은 엉덩이와 팔꿈치를 이용한 동작으로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풍자성을 돋보인다. 여자 무용수가 입은 스펀지 신체의 나체가 보이면서 부르주아의 부끄러움을 나체를 통해 드러내고 비판하고 있다. 옷을 급하게 가지고 나가는 무용수를 보며 우스꽝스럽지만 창피한 부르주아의 모습을 보여준다. 가벼운 질감의 움직임으로 무거운 몸을 제어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모습 등에서 웃음으로 그들을 조롱하고 폄하하고 있다. 엉덩이를 사용하며 웃음을 자아내는 움직임과 우아한 듀엣을 선보이기도 하지만 그것마저도 가벼워보인다. 이런 움직임들과 구성에는 이상적인 부르주아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질감과 모습들로 채워져 그들을 비판하는 신랄한 풍자가 담겨있다.

「Groosland」는 의상에서 가장 풍자성이 많이 드러나는 작품이다.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무용수가 뚱뚱한 스펀지 의상을 입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옷을 입었을 때와 벗을 때가 구분되어 확연히 다른 이미지를 연출한다. 의상을 입었을 때는 부르주아의 이미지를 뚱뚱한 옷에 맞게 연출하였고 뚱뚱한 전라는 예상하지 못한 실제 신체모양을 그대로 보여주어 비판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였다. 부르주아의 욕심을 뚱뚱한 인간상으로 표현하고 그들의 움직임을 우습게 만들어 18세기, 19세기의 자본주의와 그에 맞선 부르주아층을 조롱하고 있다.

11) 마기마랭 무용단, 〈<http://www.arttotal.com/comp/emm.htm>, 2018, 5, 23.〉.

### 3. 코펠리아(Coppelia)



〈그림 3〉 코펠리아

「Coppélia」는 댄스필름으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1870년의 아더 생 레옹(Arthur Saint-leon)의 「Coppélia」의 스토리를 재해석한 것이다. 원작에서 이미 코펠리우스 박사의 어리석음을 조롱하고 비판하며 풍자성을 담고 있고, 마기 마랭도 생 레옹의 「Coppélia」와 비슷하게 스토리를 이어간다. 하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커플의 화해를 강조한 생 레옹과 달리 그녀는 코펠리우스 박사의 허망함을 비추며 그녀만의 색깔로 풍자성을 더 강조하였다.

댄스필름의 특성상 다양한 장면이 있고 장면의 변화가 많지만 그 중 가장 풍자성이 많이 드러나는 부분은 프란츠와 코펠리우스의 꿈 속 장면으로 프란츠와 코펠리우스가 꿈을 꾸며 코펠리아들이 등장하는 부분이다. 꿈 속에서 코펠리우스와 프란츠가 코펠리아들을 바라보는 장면에서 저속화된 시간(Time)과 무거운 무게(Weight)로 그들의 아둔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비꼬며 강조하고 있다. 코펠리아들이 춤을 추는데 흐름(Flow)이 제한적이고 무게(Weight)가 무거운 인형같이 딱딱하고 끊어진 움직임으로 코펠리아가 인형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코펠리아들의 엉덩이와 골반을 이용한 움직임이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오히려 그녀들을 보면서 좋아하는 프란츠와 코펠리우스의 우매함이 드러난다. 코펠리아들은 프란츠와 코펠리우스를 둘러싸며 그들을 칭송하는 듯 하지만 현실이 아닌 꿈속에서 인형에게 대우를 받고 우쭐해 하는 그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프란츠는 현실로 돌아와 약혼녀와 화해를 하지만 코펠리우스는 허망하다. 코펠리우스가 코펠리아들의 영상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 장면에서 기본 스토리와 다른 풍자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존의 스토리에서는 프란츠와 스와닐다의 결혼이 더 강조되어 코펠리우스의 장면은 크게 보이지 않지만 마기마랭의 작품에서는 그들의 결혼보다 코펠리우스의 어리석음을 강조하며 풍자성이 크게 드러난다. 영상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에 집중이 되어 그가 인형을 좋아한 어리석고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Coppélia」에서 시각적으로 풍자성이 가장 돋보이는 것은 코펠리아, 코펠리우스, 프란츠의 의상이다. 코펠리아가 인간이 아닌 것을 강조하여 머리카락부터 스타킹까지 작은 소품까지 고려하여 세부적인 묘사로 그녀를 표현하고 있다. 그녀를 통해 그녀가 인간이 아닌 인형에 호기심을 가지는 20세기의 인간을 비판하고 있다. 마기마랭은 코펠리아의 의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그것은 색다른 존재에 대한 하나의 이미지이다. 한 외로운 남자의 삶의 위안을 위하여 만들어진 환상적인 여성 이미지의 창조물인 것이다. 큰 키, 금발, 높고 붉은 하이힐 등으로 포장되어 복제되어진 코펠리아 이미지들은 ‘이상적인 여성상’을 투영함과 동시에 전형적인 여성 이미지의 잘못된 초상이다.<sup>12)</sup>

마기 마랭은 남성들의 이상적인 여성상에 대한 빼놓아진 시각을 비판하기도 한다. 본 작품의 대상은 자본주의와 그 사회에 따라 눈이 먼 인물이며 이 캐릭터를 통해 작품 속에서 풍자를 표현하였다. 코펠리

12) Margalit Berriet and Roslyn Sulcas(1996), *Dance Magazine*, p.28.

우스는 박식한 박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현실과 달리 꿈에서는 속옷과 상황에 맞지 않는 전통의상을 입으며 웃음을 자아내 그의 극단적인 다른 모습이 보인다. 우스꽝스러운 의상을 입고도 코펠리아를 바라보는 그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프란츠도 코펠리우스와 마찬가지로 속옷차림에 과한 무늬와 장식의 전통의상을 입으며 웃기면서도 그의 아둔함이 비꼬아 표현되고 있다.

#### IV. 세 작품에 나타난 풍자적 특징

II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풍자의 대상은 사회적 역할을 지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사회, 인물, 관념, 품행 등 모두 풍자로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Cinderella」에서는 부조리한 사회에서 지적받을 수 있는 대상인 작품 속 인물들의 인간성을 비판했다.

본 작품에서는 그 대상을 바탕으로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였다. 비평가 안나 키셀로프(Anna Kisselgoff)는 뉴욕타임즈의 기사에서 이 작품의 의상과 안무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복자매와 계모는 신데렐라와 매우 달랐다. - 블루머와 코르셋을 입은 그들의 두툼한 의상과 머리 위로 세워진 머리카락들은 고무가 벗겨지고 부서진 코와 함께 방탕한 인형을 연상시킨다. 그들의 안무는 그들의 울화를 표현하기 위해 발을 구르고 주먹을 쥐는 동작으로 특징되어 진다.<sup>13)</sup>

기사의 내용처럼 「Cinderella」에서는 캐릭터들의 성격을 외형적으로 나타내면서 풍자성을 표현하였다. 무용수들은 시각적으로 우스운 캐릭터가 완성되고 동작 또한 과장되게 움직였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풍자는 사회가 혼란스럽고 억압되어 있을 때 자유롭게 표현을 하지 못해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비판하기 어려운 대상을 웃음이 바탕이 된 다양한 움직임들의 질감들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비하하고 있다.

비평가 키셀로프는 다시 뉴욕타임즈에서 마기마랭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생김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마랭은 마임이나 얼굴을 이용한 표현을 사용하여 발레의 전통적 관념을 깨기 위해 무용수들에게 마스크가 씌워진 인형을 입혔다고 한다. 그녀의 말을 직접 가져오자면, ‘나는 달콤한 이미지로 안무할 수 있었다. 하지만, 「Cinderella」에서 부서지고 버려진 인형을 연출하고자 했다. 어른이 되면 어릴 때 기억이 흐릿해진다. 작품 속 인형의 얼굴은 부분적으로 지워져있어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sup>14)</sup>

그녀는 등장인물이 쓰고 있는 인형의 얼굴조차도 세세하게 묘사하여 대상의 이미지를 명확히 살렸다. 이러한 점은 풍자의 대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잘 이해하고 묘사해야한다는 풍자적 특징에 잘 나타나는 부분이다.

13) Anna Kisselgoff(1987), “Dance View: Maguy Marin’s Visions of Lost Childhood”, *The New York Times*.

14) Anna Kisselgoff(1987), “Maguy Marin’s Doll’s-eye View of ‘Cinderella’”, *The New York Times*.

「Groosland」는 실제 18세기, 19세기의 프랑스 계급인 뽀띠부르주아지를 비판하고자 했으며 풍자의 도 안에 지적하고자 하는 바와 교훈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계급은 자본가 계급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자본주의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노동자 계층과도 관계를 맺으며 이중적인 성격을 보였다. 마기마랭은 뽀띠부르주아지의 이중성을 웃음을 통해 비판하였다. 평론가 존 록웰(John Rockwell)은 뉴욕타임즈에서 「Groosland」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무용수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들은 Macel Pagnol의 영화 ‘Fanny’의 등장인물들 같았다. 어두운 파란색 계열의 작업복, 너저분한 드레스, 엄청 작은 증절모와 같이 전형적인 프랑스 남부의 뚱뚱한 노동자 계급의 모습이다. 그들은 백인피부색의 비대한 의상을 여전히 입고 있지만 ‘별거숭이’처럼 옷이 벗겨졌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행동은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고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며 확실히 숨은 의도가 있다. 그러나 마랭의 표현하기 불편한 것을 웃음으로 풀어내는 능력은 주목할 만하다.<sup>15)</sup>

이와 같이 「Groosland」는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작품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삼아 비판하고 있으므로 그 시대의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잘 나타나고 있다. 강미혜(2013)의 연구에서 풍자는 단순히 대상을 비꼬고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도덕적으로 교정하기 위한 사회적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sup>16)</sup> 풍자는 비판을 넘어 사회적인 현상을 개혁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은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다.

「Groosland」의 무용수들을 보면 세부적인 묘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무용수들은 뚱뚱한 옷 뿐 아니라 의상의 색깔과 그 안에 입은 속옷, 스타킹, 모자 등 작은 부분까지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다. 풍자의 대상에 대해 세부적인 묘사가 이루어져야 풍자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으므로 본 작품의 무용수도 생생한 작품 속 인물로 묘사되었다. 「Groosland」의 웃음은 객관적인 웃음에 해당된다. 의상과 움직임에서 풍자가 나타나 관객들이 함께 웃음을 지으며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본 작품에서 지성을 바탕으로 한 풍자는 관객들에게 주관적인 해학의 웃음과 달리 객관적인 웃음을 선사하며 대상을 비판한다.

생 레옹의 「Coppélia」는 내용 자체에 이미 풍자성이 내포되어 있다. 본 작품은 그 당시 사회를 작품 속 캐릭터를 통해 비판하고 있다. 키셀로프는 「Coppélia」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삼페인에 취해 프란츠와 코펠리우스는 코펠리아가 두 명으로 보이고 점점 많아 보인다. 23명의 같은 여자들이 나오고 그들은 생명력이 없었다. 동네 사람들과 스와닐다가 한 무리가 되어 이상적인 인물처럼 변장했다. 마랭이 리옹 발레단에서 창작했던 신데렐라의 인형의 집 광경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진지한 관념을 담은 우스꽝스러움이 놀랍지 않을 것이다.<sup>17)</sup>

위의 기사처럼 과학의 발전으로 사람의 형상을 한 기계인형이 제작되며 그 곳에 눈이 먼 캐릭터를 보여주며 그 시대의 사회를 비꼬고 웃음을 통해 지적하고 있다. 코펠리우스는 캐릭터를 통해 기계인형에

15) John Rockwel(2006), “Stripped Down to Their Fat Suits, With Nary a Toe Shoe in Sight”, *The New York Times*.

16) 강미혜(2013), p.7.

17) Anna Kisselgoff(1996), “Festival Review/Dance: Classical Guys and Dolls, With an Edge”, *The New York Times*.

빠지는 어리석음과 그것을 통한 허망함을 보여주며 여성을 쾌락의 도구로만 보는 남성을 비꼬며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을 바탕으로 작품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녀는 원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성상과 더불어 그 시대에 이상적인 여성상의 잣대가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있는지 작품에 담고자 하였다. 기계인형에 불과한 코펠리아에게 빠져 현실의 약혼녀에게 충실하지 못한 프란츠의 태도를 비추고 지나친 과학에 관한 호기심을 비판하며 본 작품이 위와 같은 시대 현상을 교정하기 위한 사회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작품의 캐릭터들은 생생하고 세부적인 방법으로 묘사되었다. 앞서 분석한 풍자의 특징에서 풍자의 대상은 세속적인 것이므로 대상을 생생하게 이해하고 파악해야 풍자가 가능하고 세부적인 방법으로 묘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 작품은 극장에서 공연되는 것이 아닌 영상으로 전달되므로 표현하려는 대상을 더 집중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코펠리아, 코펠리우스와 프란츠는 움직임, 의상 및 소품과 얼굴의 표정을 통해 섬세한 묘사를 보여준다. 이처럼 풍자의 대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묘사가 필요하다.

Effort 이론을 바탕으로 세 작품을 분석한 결과, 무게(Weight)가 가볍게 나타나 무용수의 움직임을 한 번 더 비꼬면서 풍자성이 나타났다(〈표 1〉 참조). 공간(Space)은 강조해야 할 캐릭터나 장면에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과장된 움직임을 돋보이게 해주었다. 제한적인 움직임의 흐름(Flow)을 통해 인형의 움직임을 강조하면서 기계화된 인간을 비판하고 움직임의 시간(Time)이 가속화 되면서 무용수들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무용수들의 신체는 무거워 보이지만 오히려 움직임을 가볍게 하여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면서도 대상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또한 마기 마랭은 에포트의 요소를 극대화 시켜 풍자 하였고 이는 관객들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처럼 마기 마랭은 다양한 방법으로 세 작품에 풍자성을 담아내었다.

〈표 1〉 Effort 이론을 이용한 움직임 분석

	(1) Cinderella	(2) Groosland	(3) Coppélia
무게(Weight)	시각적 효과는 무거워 보이지만 오히려 가벼운 질감으로 한 번 더 비꼬아 표현한다.	뚱뚱한 의상 때문에 무겁게 움직일 것 같지만 오히려 가볍게 움직이며 비꼬아 표현한다.	날씬하고 가벼워 보이는 기계인형이지만 무거운 질감으로 움직여 인형임을 강조하고 과장한다.
시간(Time)	몸이 무거워 저속화될 것 같지만 가속화하여 그들의 욕심을 가벼운 질감으로 강조하며 비꼰다.	무게가 무거워 보이기 때문에 시간 또한 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가속화되며 비꼬아 표현한다.	기계인형에 대한 애정을 시간을 저속화하며 표현하여 풍자의 대상의 어리석음을 비판한다.
흐름(Flow)	흐름이 자유롭지 못하고 제한적이어서 인형임을 강조하여 과장된 움직임을 보여준다.	상체와 하체를 나누어 흐름의 질감을 때로는 자유롭고 때로는 제한적으로 사용하여 우스꽝스러운 움직임 질감을 연출한다.	기계인형의 움직임이 제한적이라 끊어지는 질감으로 인형임을 강조하며 과장되게 표현한다.

풍자적 관점에서 세 작품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Cinderella」에서 풍자의 대상은 사회적 역할을 지닌 모든 것이 가능하여 부조리한 사회에서 인간의 인간성을 풍자하였고, 웃음을 통해 비판의 의지를 담고 있고 직접적으로 비판하기 어려운 대상을 움직임과 외형적인 특징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대상을 풍자하였다는 특징이 강하게 드러났다. 「Groosland」에서는 계층과 사회의 구조를 비판하며 교훈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작품이 대상의 비판을 통해 생각할 기회를 주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캐릭터들이 세부적으로 묘사되었고 대상의 이미지적인 면을 강조해 풍자성을 드러냈다. 「Coppélia」에서는 사회와 그 세대의 부조리를 풍자의 대상으로 삼았고 작품은 사회를 비판하며 개혁하고자 하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대상을 생생하게 묘사하였으며 다양한 질감의 움직임으로 풍자를 표현하였음을 보여준다.

## V. 결론

본 연구는 마기 마랭의 작품을 풍자적인 관점으로 분석하기 위해 풍자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재해석한 발레 작품인 「Cinderella」, 「Groosland」, 「Coppélia」에 어떠한 방법과 특징으로 풍자성을 담아 내었는지 분석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작품에 풍자가 주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골계의 하위개념인 풍자는 해학과 같이 웃음을 통해 대상을 나타내지만 해학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해학은 웃음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내지만 풍자는 웃음을 통해 대상을 비판하고자 한다. 작품에서 다양한 방법과 특징을 이용하여 풍자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방법과 특징을 바탕으로 마기 마랭의 작품을 분석하였다.

마기 마랭의 작품을 풍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그녀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발레 작품 「Cinderella」, 「Groosland」, 「Coppélia」를 선정하였다. 이 작품들의 에포트 요소를 분석해본 결과, 뚱뚱한 의상을 입힌 캐릭터가 무거울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움직임의 무게(Weight)가 가볍고 시간(Time)이 가속화됨을 보여줌으로써 대상을 한 번 더 비꼬아 표현하며 관객에게 웃음을 주었다. 흐름(Flow)은 제한적인 질감으로 인물의 이미지적인 면을 강조하고 공간(Space)은 인물을 강조하고자 할 때 직접적인 질감을 표현했다. 이처럼 마기 마랭은 에포트 요소를 강조하여 풍자를 표현하면서 의도를 명확하게 담아내었다.

마기 마랭의 세 작품을 풍자적으로 분석한 결과, 풍자를 활용하여 세속적인 인물, 사회, 부조리, 관념 등을 대상으로 하며 그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며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 관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각적인 효과로 의상을 통해 웃음을 선사하고 비판하였으며 움직임 또한 전통적인 발레에 국한되지 않고 캐릭터에 맞는 새로운 움직임으로 풍자를 표현하였다. 풍자의 대상을 강조하기 위해 캐릭터들을 섬세한 묘사를 사용하였다. 실제 작품의 인물처럼 생생한 외적인 모습과 캐릭터에 맞는 움직임을 통해 인물의 성격까지 볼 수 있었다. 세 작품 모두 대상을 비판하는 의도를 담고 있으므로 풍자성을 띄고 있으며 작품에서 유발되는 웃음은 객관적인 웃음에 해당한다. 풍자는 사회가 부조리로 가득할 때 대상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 어려워 간접적으로 비판한다. 마기 마랭은 우스꽝스러운 모습과 움직임을 이용하여 풍자의 대상을 우회적으로 비판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단순한 비판이 아닌 웃음을 통해 어렵지 않게 관객들에게 다가가며 풍자성이 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마기 마랭의 작품 중 풍자화 된 발레 작품을 연구하였고 후속 연구에서는 마기 마랭의 작품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연구해보기를 권장해본다. 또한 풍자적으로 작품을 안무했던 안무가는 마기 마랭 뿐 아니라 많은 예술가들이 있으므로 함께 비교 분석하여 풍자의 표현과 특성을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해 연구해 보는 것을 제안한다.

## ■ 참고문헌

- 김동리(1973). 『한국문학대사전』. 서울: 문원각.
- 이희승(2015). 『국어대사전』. 경기: 민중서림.
- 정진국(2001). 『풍자예술의 역사 고대와 중세의 패러디 이미지』. 서울: 까치.
- 한용환(1999). 『소설학 사전』. 서울: 문예출판사.
- Berriet Margalit and Sulcas Roslyn(1996). *Dance Magazine*.
- 강미혜(2013). ‘풍자’로 희화된 현대인 표현 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판삼(2017). 해학과 풍자의 표현 특성 및 요인 - 연구자 작품을 중심으로 -.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선명(2010). 유럽 현대무용의 미학적 변이와 표현형식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29: 27-46.
- 이경희(2014). 라반의 에포트(Effort) 양극성에 나타난 융(Carl Jung)의 심리적 기능. 『무용예술학 연구』, 48(3): 91-109.
- 차주연(2017). 마기마랭(Maguy Marin)작품 「May B」에 나타난 연극적 안무구조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Kisselgoff Anna(1987. 1. 23.). “Maguy Marin’s Doll’s-Eye View of ‘Cinderella’”. The New York Times.
- Kisselgoff Anna(1987. 5. 17.). “Dance View; Maguy Marin’s Visions of Lost Childhood”. The New York Times.
- Kisselgoff Anna (1996. 7. 24.). “Festival Review/ Dance; Classical Guys and Dolls, With an Edge”. The New York Times.
- Rockwell John (2006. 10. 9.). “Stripped Down to Their Fat Suits, With Nary a Toe Shoe in Sight”. The New York Times.
- <<http://www.arttotal.com/comp/cmm.htm>, 2018. 5. 23.>.
- <<https://www.bilibili.com/video/av4901004/>, 2018. 3. 20.>.
- <<https://www.youtube.com/watch?v=8YhMKq9CD-4>, 2018. 3. 20.>.
- <[https://www.youtube.com/watch?v=SRr4\\_Ive8Ec&list=PL0ZVS5PqYsaAiKgya95DO-UDL-iBvIxm&index=4](https://www.youtube.com/watch?v=SRr4_Ive8Ec&list=PL0ZVS5PqYsaAiKgya95DO-UDL-iBvIxm&index=4), 2018. 3. 20.>.

논문투고일 2018. 9. 15  
심사일 2018. 9. 19  
심사완료일 2018. 10. 2

## A Study on Maguy Marin's Works with Satirical Elements

— Focusing on 「Cinderella」, 「Groosland」, 「Coppelia」 —

Ahn, Hyunmin\* · Cho, Eunsook\*\*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 Professor of Dance,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how re-interpreted ballet works of Maguy Marin with her own language and imagination deviating from stereotypical form were influenced by satire. Prior to the analyzation, notions and traits of satire were defined referring to preceding thesis and related books.

The study reviews the three pieces of Maguy Marin : 「Cinderella(1987)」, 「Groosland(1989)」, 「Coppélia(1993)」.

「Cinderella」 satirizes characters and their humanities. 「Groosl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society as it gives audiences with chances to think about the real social problems. 「Coppélia」 already includes satire in its story line. The subjects of satire are an ideal woman that males think of and the curiosity as a result of scientific development.

From the results, it is possible to find out how satire expresses and influences the performing arts pieces, consequently, making it possible to provide various choreographic methods to choreographers.

Keywords: Maguy Marin(마기마랭), Satire(풍자), Critic(비평), Dance(무용), Expression(표현)